

주변인에서 방어자로

청소년폭력 대응 「체인지업(Change-Up)」의 효과와 시사점

*체인지업 프로그램: 체인지업(Change-Up)은 학교폭력의 가해자·피해자를 넘어 '주변인'의 역할에 주목하며, 공동체 회복과 예방을 함께 실현하는 사후개입 프로그램임

▣ 청소년폭력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 최근 학교폭력 대응 정책은 징계·처벌 중심의 사후 조치에서 학교 구성원 전체의 회복을 중시하는 '회복적 공동체'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
- 2024년부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건 발생 후에도 학생 관계 회복 및 재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고, 시·도 교육청 단위로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운영함
- 성남시는 2025년 'ESG특별시 성남' 비전을 통해 청소년 폭력 제로를 사회·안전분야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폭력 예방과 회복을 시정 차원의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함

▣ 청소년폭력 대응 관점의 변화 : 개인 처벌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 기존 대응은 피·가해자 중심으로 학급 분위기 회복, 주변인 개입, 재발 방지 대책이 부족했음
- 청소년폭력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며, 학교 내 방관자와 무관심은 폭력의 지속과 확산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청소년폭력 '공동체 사후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 대두

- 기존의 피·가해자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주변인(방관자)과 학급·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 학교 개입(Whole School Approach)'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 이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폭력 발생 이후 개별 상담·징계 중심 대응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복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후개입'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함

▣ 체인지업을 통한 학교의 변화, 청소년의 변화

- '체인지업(Change-Up)' 프로그램은 학급 전체가 하나의 집단적 방어자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청소년폭력 사후개입 프로그램임
- 2025년 성남시 초·중학생 966명 대상 연구 결과, 학급 응집력, 방어자 행동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됨
- 프로그램은 역할극·공감 인터뷰·모의 상황 토론 등을 통해 도움·증재·신고 행동의 증가와 피해자를 돋는 경험 축적을 통해 방관자에서 적극적 방어자로의 역할 전환과 공동체 기반 청소년폭력 예방의 실질적 변화 보여줌

청소년폭력 정책의 변화 비교 : 처벌에서 회복 지원으로

- 과거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징계·신고·처분이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폭력 이후 학교 전체의 관계 회복, 피해 학생의 정서적 회복, 주변 학생의 방어자 역할 등 공동체 기반 지원체계가 청소년폭력 지원의 핵심 방향으로 전환됨
- 정부 청소년폭력 정책은 2023년부터 △학교 자체 기능 회복(학교 내 문제해결력 강화) △학교-지역-교육청 간 연계 강화 △학생·교원·학부모의 역량 강화 등 '함께 회복하는 구조'로의 청소년폭력 대응구조 전환 제시함.

| 구분 | 과거 정책 (2004~2023년) | 현재 정책 (2023년 이후) | 정책적 변화 포인트 |
|---------|-----------------------|-----------------------|---------------|
| 정책 패러다임 | 징계 및 처벌 중심의 사후 조치 체계 | 관계 회복과 예방 중심의 통합체계 구축 | 처벌 → 회복·예방 중심 |
| 핵심 관점 | 가해자·피해자 개인 중심 대응 | 학급·학교 공동체 중심 | 개인 → 공동체 |
| 핵심 목표 |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 분리 | 학급·학교 공동체 회복 중심 대응 | 사안 처리 → 관계 회복 |
| 핵심키워드 | 분리조치, 선도교육, 징계 | 회복, 통합, 응집력, 공감 | 제재 → 회복·통합 |

교육부(2004~2025). 「제1~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교육부(20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청소년폭력 사후개입 프로그램 체인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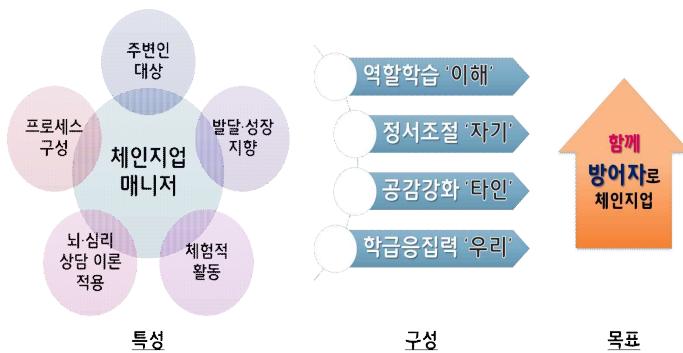
■ 우리 모두가 청소년폭력 방어자

- 청소년폭력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4년 청소년폭력 대응 프로그램 개발 추진함
- 이에 따라, '체인지업(Change Up)프로그램'을 청소년폭력 공동체 사후개입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함
- 기존의 '가·피해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청소년폭력의 주변인(방관자)을 핵심 개입 대상으로 설정함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 학급 단위(집단)
 - 목표 : 방관자(Bystander)를 방어자(Defender)로 전환하고, 학급응집력 및 관계 회복 촉진
 - 구조 : 총 4회기, 8차시(각 40~45분)
 - 특성 : 모든 학생이 '우와체인지' 역할을 순환하며 방어자 행동을 학습·연습·내면화하도록 구성됨



<체인지업프로그램 매뉴얼>

청소년폭력 사후개입 프로그램 체인지업 특성 및 구성



■ 체인지업의 특성

- 청소년폭력 피·가해자가 아닌, 주변인 대상 프로그램
 - 주변인을 대상으로 방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 지향
 - 문제나 처벌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성숙을 돋고 건강한 방향으로의 성장과 발달 도모
- 체험적 활동 중심으로 구성
 - 주입식 교육이 아닌 캠페인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 수행
- 뇌과학 및 심리상담 이론 기반
 - 정서 조절 및 관계 관련 뇌과학 및 심리상담 이론 적용
- 프로그램의 각 회기의 유기적 연결 프로세스

<체인지업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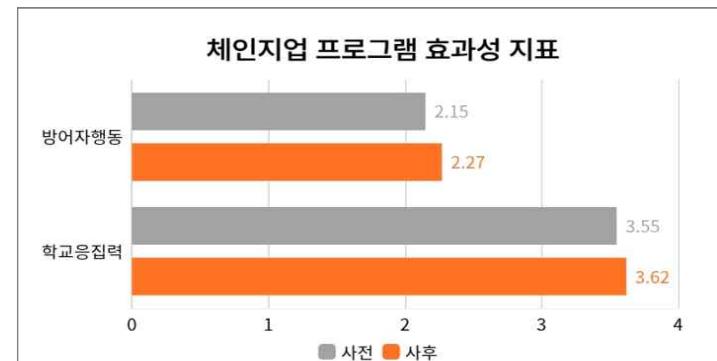


| 구분 | 내용 | 핵심 목표 | 주요활동 |
|-----------|--------|----------------------|---|
| 1회기 이해 | 역할학습 | 주변인 역할 인식, 방어자 개념 이해 | 청소년폭력 유형 분석, "우리는 노폭(No Violence)" 비폭력에 대한 약속 |
| 2회기 자기 | 정서 조절 | 감정 인식 및 조절 훈련 | 신체 감각 활동, 청소년폭력 부정적 감정표현 |
| 3회기 타인 | 공감 강화 | 피해자 공감, 관계 회복 | 피해자의 공감 강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감소 |
| 4회기 우리 | 학급 응집력 | 반폭력 집단규범 형성 | 공동 규칙 만들기, '우와 체인지' 릴스 영상 제작(캠페인) |

체인지업(Change-Up)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체인지업 프로그램의 효과

- 체인지업(Change-Up) 프로그램은 청소년폭력 상황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어자 역할을 하는 수준을 넘어, 집단(학급) 전체가 방어자로서의 기능하도록 돋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그램 운영 결과 학급응집력, 방어자 행동 향상 효과
 - 2025년 성남시 초·중학생 966명 대상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학급 응집력과 방어자 행동 향상
 - 이는 프로그램 참여가 학급 내 협력적 분위기 강화와 함께 학생들의 적극적 방어 행동 촉진 기여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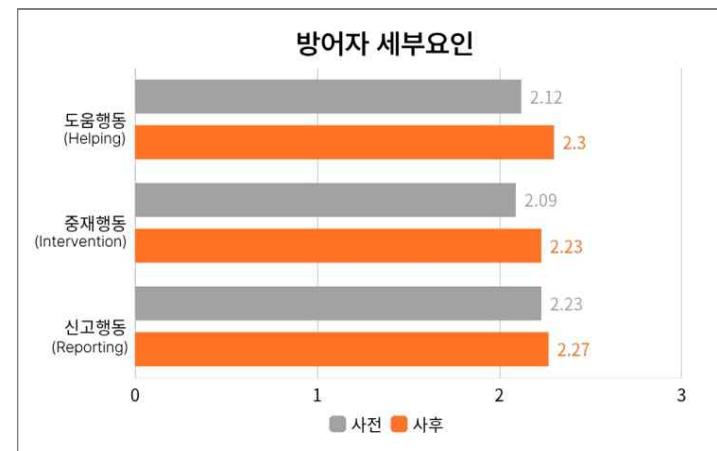
체인지업프로그램 효과성 세부 내역

학급 응집력의 향상을 통한 긍정적 관계회복

- ‘학급응집력(Class Cohesion)’은 학급 내 신뢰, 소속감, 협력 정도를 의미함
- 체인지업 프로그램의 감정 이해, 대화 중심 활동을 통해 학급 내 신뢰, 소통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화됨
- 4가지 하위요인(의사소통, 일체감, 사기, 상호신뢰) 모두 사전 대비 상승함
 - 특히 사기(참여 의욕), 상호신뢰에서 큰 폭의 향상 나타남
-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학급 내 관계 향상
 - 함께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학급 내 관계 긍정적으로 재구성
 - 단순한 친밀감 증가에 그치지 않고, 공동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팀 기반 분위기가 형성됨

청소년폭력 방어자 행동 향상

- ‘방어자 행동(Defending Behavior)’은 청소년폭력 상황에서 학생이 피해자를 돋기, 상황을 중재하기, 교사에게 신고하기 등으로 개입하는 행동을 의미함
- 체인지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폭력을 멈추자’ 수준을 넘어서, 도울 방법을 직접 연습하는 역할극, 공감인터뷰, 모의상황 토론을 중심으로 구성됨
- 프로그램 참여 후 도움-중재-신고 행동이 모두 증가하여, 학생들이 혼자가 아닌 집단으로 개입하는 경험이 강화됨
- 지속적 역할 연습을 통해 두려움은 감소하고, 행동의 자신감은 증가했으며, 필요한 경우 신고행동 역시 유지 또는 향상됨.
- 결과적으로 방관자(Bystander)에서 방어자(Defender)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촉진된 것으로 나타남



체인지업(Change-Up) 성과 : 예방을 넘어 관계의 회복

■ 체인지업(Change-Up)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평가

- 프로그램 특성 상 비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집단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의 높은 몰입도와 긍정적 참여 반응이 확인됨
- 학생과 교사 모두 프로그램이 청소년폭력 이후의 교실 분위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함
- 다양한 정성·정량 평가 결과, 체인지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방교육을 넘어 관계 회복형 프로그램으로서 기능했음이 입증됨

■ 체인지업(Change-Up) 프로그램 효과 종합 평가

- 학급응집력 향상 효과 : 프로그램 참여 후, 학급응집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방어자 역할 점수 역시 동반 상승함 두 요소 간의 상관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학교응집력이 방어자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함
- 방어자 행동 증가 효과 : 방어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 수가 평균 0.72명 증가하여, 피해자를 돋고 개입하는 실제 행동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방어자 역할이 강화되면서, 학급 내 폭력 상황에 대한 능동적·집단적 개입 행동이 증가됨

체인지업(Change-Up) 회복 지원의 향후 방향 모색

■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고도화

- 「체인지업(Change-Up)」은 단순한 예방교육이 아닌, 청소년폭력 이후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 사후개입프로그램으로서 정부와 시 정책 방향과도 일치함.
-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남교육지원청-학교 간 협력 구조를 체계화하고, 청소년폭력 사후 개입을 담당할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폭력 ‘방어자 문화’의 일상적 확산

- 체인지업은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학급문화 변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폭력 대응을 ‘개별 학생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힘에 기반한 대응체계로 전환시키고 있음.
- 이를 위해 청소년폭력 릴스 캠페인인 우와 체인저 활동의 정례화, 학급 단위 방어자 실천 프로젝트,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폭력 방어자 문화’가 학교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지원해야 함.

■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현장 교육 강화

- 체인지업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실행 역량 확보를 통한 현장 중심의 교육 체계 강화가 필수적임
- 교사전문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체인지업 지도자 양성 교육’의 정규 운영 등을 통한 학교 내 프로그램 실행 역량 확대 필요

■ 대상 범위 확대 및 심층개입 모델 개발

- 현재 프로그램 대상은 초등 4학년~중등 3학년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단계별 개입을 위해 기본형 외 심화형 프로그램 모델 개발 추진이 필요함
- 또한 프로그램 참여 이후 관계 점검, 후속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기 변화가 아닌 장기적·지속적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참고문헌

- 교육부(2025)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교육부(202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부(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정지혜, 라수현, 안세아(2025) 학교폭력 주변인 대상 ‘체인지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